

그러나 바로 이러한 때에 에녹과 같은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죄가 있는 사회 속에 살면서도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가 살던 사회는 노아의 홍수를 앞둔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살았던 그는 삶 속에서 말씀을 말없이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상 속의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고귀함은 믿음으로 행할 수 없을 때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고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있다 해도 그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나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고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시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워 올라간 것과 같이 주님 오실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녹의 승천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속과 더불어 살게 됩니다. 여전히 변화 받지 못한 세속적인 사람의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과 같은 세상 속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305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 다같이 **주기도문** ----- 다같이

이



BIG HOPE CHURCH
큰소망교회

2025년

설가정예배

세상 속의 성도

신명기 31장 7-8절 말씀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이

찬송 -----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다같이

성경 봉독 --- 창세기 5장 21-24절(구약 7쪽) ----- 다같이

말씀 ----- 세상 속의 성도 ----- 인도자
본문은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 두 사람 중
의 한 사람인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짭짤하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
입니다. 엘리야와 에녹,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한 대표적인 인물들
입니다. 에녹의 일생은 어떠하였길래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
라갈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오늘 설을 맞아 우리 가족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특징적인 말씀
은 22절과 24절에서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갔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각자 자기 옳은대로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녹의 시대는 6절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와 겹쳐 있는데 노아의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었
던 시대인지는 신약에서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죄악된 성
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
터 인정을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한 에녹을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산 채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과연 노아의 시대와 다를 것이 있습니까? 노아 시대의
죄악은 창 6:5-6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
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
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시대
와 같은 시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때에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도 역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할 때에 비로소 인
간은 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도 하나님과 동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
늘로 올리우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도 그
러한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에녹은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
한 성도였습니다. 요즈음처럼 예수 믿기 쉬운 때도 없고, 예수 믿기 어려
운 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믿는 것을 책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기 참으로 쉬운 때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를 믿는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당해서 재산을 몰수당하
기도 하고,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도 해야 했습니
다. 그때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요즈
음처럼 예수님 믿기 어려울 때도 없습니다. 죄악이 넘치면 넘칠수록 예
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드는 일입니다. 많은 유혹과 적당
한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면 왜 바
보같이 시대에 뒤떨어지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살기 좋
아지고 사치와 향락이 넘치면 넘칠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
다.